

crédits photos © Christian Giudeman /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, réalisation graphique Marie-Hélène Forestier, traduction Tinducto, imprimé en France, 2024.

### 용어집

**수도원:** 수도원장 또는 수녀원장의 지시에 따라 계율을 지키며 생활하는 수사 또는 수녀가 거주하는 곳

**수도원장(수녀원장):** 선출되거나 임명된 수도원의 수장

**대천사:** 천계에서 가장 높은 천사

**부벽:** 벽을 지지하기 위해 벽면 바깥에 돌출되게 세운 기둥

**수도원 성당:** 수도원의 성당

**납골소:** 무덤에서 사람의 유해를 일부 가져와 보관해놓은 방

**성 베네딕트의 규칙:** 6세기 누르시아의 베네딕트가 이탈리아의 몬테카시노에 설립한 수도원을 위해 제정한 기도, 일, 수도원 생활을 규율해 놓은 규칙

**트랜sept:** 교회의 네이브와 성가대석 사이를 횡단하는 공간

### 정보

의견을 공유해주시면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됩니다.



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 
**Abbaye du Mont-Saint-Michel**  
 50170 Le Mont-Saint-Michel  
 tél. 02 33 89 80 00

[www.abbaye-mont-saint-michel.fr](http://www.abbaye-mont-saint-michel.fr)  
[www.monuments-nationaux.fr](http://www.monuments-nationaux.fr)

### 생미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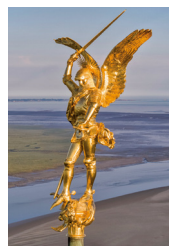
#### 악에 맞서 싸우며 영혼의 무게를 재는 자

천상 군대를 이끄는 성 미카엘은 중세 종교적 감수성에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.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천사\*는 악마의 상징인 용과 맞서 싸우고 승리합니다.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중세인들에게 성 미카엘은 심판의 날에 죽은 자를 인도하고 영혼의 무게를 재는 존재였습니다.

#### 성 미카엘 승배

서양에서 성 미카엘에 대한 숭배는 5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등장합니다. 백년전쟁 이후 프랑스에서 성 미카엘에 대한 신심은 영국에 대한 몽생미셀의 항전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차원을 띠게 되었습니다.

#### 성인의 도상



기독교 도상학에서 성 미카엘은 종종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. 1897년부터 종탑 위에 솟아있는 이 동상은 조각가 에마뉘엘 프레미에(Emmanuel Frémiet)가 건축가 빅토르 프티그랑(Victor Petitgrand)의 요청에 따라 새 첨탑을 장식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. 이 동상은 1987년에 복원되었고 2016년에 새로 도금되었습니다.

\* 뒷면에 설명

### 건축

#### 바위 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성당

몽생미셀 수도원\*은 전례없는 건축물입니다. 중세 건축가들은 바위산의 피라미드 형태를 고려하여 바위 주위를 건물로 둘러쌌습니다. 바위산 정상에 위치한 80미터 높이의 수도원 성당\*을 지하경당이 지탱하고 있습니다.

#### 수직으로 뻗은 수도원

라 메르베유(la Merveille) 건물은 13세기 건축가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이들은 바위의 북쪽 경사면에 3층짜리 건물 두 개를 지어 올렸습니다. 구조물을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게 만들고 부벽\*으로 건물을 외부에서 지지하는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.

#### 수도생활과 지형에 따른 제약

지형적 제약 뿐만 아니라 수도생활의 주요 원칙도 건물 구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성 베네딕트를 따르며 몽생미셀의 수도사들은 하루를 기도와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. 방들은 이 두 가지 활동과 수도 공동체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\* 뒷면에 설명

## 몽생미셀 수도원

### 몽생미셀

#### 태초에는 신성한 산



708년 아브랑슈의 주교 오베르(Aubert)는 대천사\*를 기리기 위해 몽 톰브(Mont-Tombe)에 성소를 세웠습니다. 이 바위산은 곧 주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. 10세기에 노르망디 공작이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을 정착시켰고, 그 아래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. 14세기에는 마을이 바위산 아래까지 확장되었습니다.

#### 다양한 역할

백년전쟁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몽생미셀은 군사건축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. 성벽과 요새로 영국군의 모든 공격을 견뎌내며 몽생미셀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. 프랑스 혁명 당시 수도사들이 추방된 후 수도원\*은 1863년까지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.

#### 세계적이며 독보적인 유산

1874년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자 수도원에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후 부지 전체에서 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. 덕분에 방문객들은 중세인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상에 낙원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이라 여겼던 수도원\*의 찬란함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. 몽생미셀은 197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

\* 뒷면에 설명

### 1 근위대의 방

이곳은 수도원\*의 요새화된 입구입니다.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. 백년전쟁 당시 군대가 주둔하면서 근위대의 방이 되었습니다.

### 2 대계단

방문객은 대계단을 올라 소고티에(Saut-Gautier) 테라스로 향합니다. 공중의 통로에 의해 연결된 오른쪽의 교회와 왼쪽의 수도원장 관저 사이를 걷습니다.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지어진 이 관저는 수도원장\*의 거처였으며 오늘날에는 수도원과 수도 공동체의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.

### 3 서쪽 테라스

서쪽 테라스는 수도원 성당\*의 초기 앞뜰과 18세기에 화재로 소실된 네이브(nave)의 앞쪽 3개 베이(bay)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고전적인 외관은 1784년에 재건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서쪽의 칸칼(Cancale) 바위와 브르타뉴, 동쪽의 노르망디 절벽까지 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두 개의 화강암 봉우리, 서쪽 내륙의 몽돌(Mont-Dol)과 북쪽의 작은 섬 톰벨렌(Tombelaine)도 볼 수 있습니다. 저 멀리 앞바다에서는 수도원\*을 짓는데 사용된 화강암이 채석된 쇼제(Chausey) 군도를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테라스에서는 1897 신고딕 양식으로 세워진 종탑의 첨탑과 그 위로 솟아있는 도금된 성 미카엘 동상이 보이는 특별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

### 4 수도원 성당\*

1023년에 지어진 수도원 성당\*은 바위 정상에 지어졌으며 경사면에 세워진 4개의 지하경당 위에 일부 자리잡고 있습니다. 로마네스크 양식의 네이브는 아케이드, 트리분, 고창층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이브의 천장은 항상 목재로 덮였습니다. 1421년에 무너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가대석은 백년전쟁 이후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재건되었습니다.



### 5 회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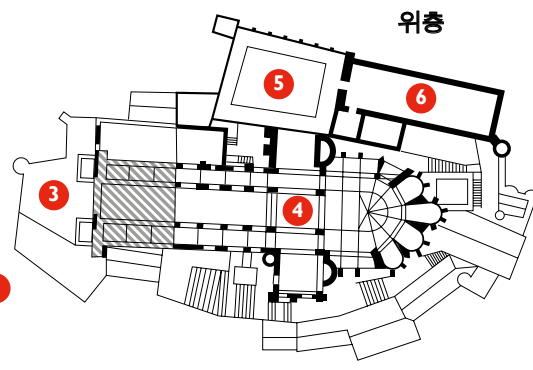
방문은 고딕 양식의 회랑으로 이어집니다. 여러 건물 사이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이 갤러리는 기도와 명상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. 종교 축제 때 이곳에서 행렬이 펼쳐졌습니다. 회랑은 13세기 초에 지어진 라 메르베유(la Merveille)라 불리는 건물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곳에서 식당, 주방, 본당, 침실, 고문서 보관실 및 다른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서쪽으로 바다를 향해 넓게 나 있는 공간은 결국 지어지지 못한 참사회실로 가는 통로였을 것입니다. 회랑 갤러리의 천장은 하중을 줄이기 위해 목재로 구성했습니다. 살짝 어긋나게 배치된 두 열의 작은 원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.

### 6 식당

인상적으로 밝은 이 방에서, 한 수도사가 남쪽 벽의 설교단에 올라가 글을 읽어주는 동안 나머지 수도사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. 목재의 하중을 지지하는 이 방의 측벽은 입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좁은 창으로 뚫려 있습니다.

### 7 손님의 방

계단을 통해 식당 바로 아래에 위치한 손님의 방으로 이동합니다. 이 웅장한 고딕 양식의 방은 왕과 귀족을 접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



### 8 대기동의 지하경당

방문은 수도원 성당의 새 성가대석\*을 지탱하기 위해 15세기 중반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지하경당으로 이어집니다.

### 9 생 마르탱 지하경당

로마네스크 양식의 이 지하경당은 BC 1000년 직후 세워져 수도원 성당\*의 트랜셉트(Transept)\* 남쪽 팔 부분의 지지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아치형 천장은 무려 9미터에 달합니다.

### 10 바퀴의 방

작은 통로를 통해 생 마르탱 지하경당에서 수도사들의 납골소\*가 있던 거대한 바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. 이 거대한 바퀴는 1818년 감옥으로 개조된 수도원\*의 수감자들의 식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. 바퀴는 중세 건축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바퀴의 복제품입니다.

### 11 La chapelle Saint-Etienne

생테티엔 경당은 19세기 초에 붕괴된 의무실과 수도사들의 납골소\*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. 고인이 된 수도사의 입관 전 몸단장과 추모의식을 하는 장소였습니다.

### 12 북남쪽 계단

그 다음 서쪽 테라스 아래의 북남쪽 계단을 이용합니다. 로마네스크 양식의 수도원을 관통하는 주요 길목이 나옵니다.

### 13 산책로

계단은 수도사들의 산책로로 이어집니다. 로마네스크 수도원의 일부인 이 긴 홀은 이중 네이브로 되어 있으며, 천장은 12세기 중반 고딕 양식의 탄생을 알린 혁신적인 리브볼트(rib vault)로 되어 있습니다.

### 14 필사의 방

필사의 방에 들어가면서 라 메르베유(la Merveille)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. 회랑을 지탱하기 위해 지어진 이 커다란 고딕 양식의 방은 수도사들이 필사본을 연구하고 사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 현재 아브랑슈에는 수도원\*의 중세 필사본 200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.

### 15 자선의 방

그 다음 손님의 방 아래층에 있는 자선의 방으로 내려갑니다. 수도사들은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각계각층의 순례자들을 맞이했습니다.

### 16 식품저장실

오래된 식품저장실을 마지막으로 방문은 마무리됩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형 수레바퀴로 끌어올린 음식을 저장했던 곳입니다. 지금은 수도원의 도서기념품 샵\*이 되었습니다.

\* 뒷면에 설명